

2/25(금) 신명기 26–28장 계약(언약) 갱신 의식

12–26장까지 하나님의 규례들이 선포되었습니다.

26:16–19절부터는 <계약(언약) 갱신 의식>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. <시내산 언약>이 가나안 진입이라는 변동에 맞춰 <갱신>되는 것입니다. 27장에는 계약내용을 명시하고 이에 응답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, 28장에는 이행과 불이행에 따른 약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.

하나님과 이스라엘은 <계약> 현장에 서게 됩니다.

하나님은 법적 효력을 전제로 계약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(12–26장).

<신명기 법전>은 들으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<훈화 말씀>이 아닙니다.

선포된 항목들에 동의하고 각각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이스라엘은 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를 행하며,

②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,

③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(26:17).

하나님은 ①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며,

②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,

③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(26:18–29).

요단을 건너는 날, 큰 돌에 명령이 명확히 새겨질 것입니다.

약속의 땅에 발을 대는 순간 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.

그 날에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

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것입니다(계약식사, 27:2–7).

12계명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들이 <아멘>으로 응답합니다(27:11–26).

공동체 <모든> 구성원이 조항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(29:10–17).

계약(언약)의 당사자로서 약관을 신중히 살피는 마음으로

오늘 본문을 함께 통독해 보겠습니다.

나는 체결된 계약을 기억하며 준수하고 있습니까?

① 계약서를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잊지 않았습니까?

② 하나님과 나, 양측 모두 의무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습니까?